

88꿈나무의 도깨비 시절

김종범
대학주보 37기 (국어국문학 1988)

1988년 3월. 신입생이었던 나는 교정에서 한 현수막을 보았다.

대학주보로 가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만물상인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운명인지 인연인지 모르지만 나는 대학주보 수습기자가 되어있었다.

호호호 귀여운 수습이 들어왔구나~

선배 기자

잘못 왔나? 무서~

도깨비 소굴로 불렸던 편집실 분위기는 엄했다.

대학주보 편집실이 있는 신문방송국

위계질서가 분명했고 뺑뺑이 같은 열차려도 있어서 같이 수습기자로 들어왔던 몇몇은 초반에 사퇴하기도 했다.

분수대 한바퀴 돌아서 선착순 3명!

군대도 아니고... 난 못해!

나도!

수습기자의 일주일은 다음과 같았다.

금
수
화
일

월요일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온 수원캠퍼스 기자들과 함께 편집회의를 하였고,

회의 내용은 이번호 평가와 다음호 준비

인원이 많아서 수습기자는 한 책상에 2명씩 앉기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원고 청탁 및 취합, 각 기자가 담당한 단과대학과 부처를 취재하였다.

8층 건물을 몇 번씩 걸어서 오르내리려니 죽겠다.

당시에 서울캠퍼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음.

금요일에는 받은 원고의 제목을 뽑거나 분량을 조정하는 편집과, 취재한 기사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밤을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고지에 손글씨로 기사 작성

밤샘때 주전자에 끓여먹는 라면맛 최고!

토요일에는 다 쓴 기사와 원고를 가지고 시내 조판실로 달려가 신문을 만들었다.

조판소

가방 속 좀 봅시다.

조판소 가는 길에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기사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불잡혀 하룻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음.

조판의 경우 전통적인 활판인쇄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문선공이 원고 내용대로 금속 활자를 골라 뽑아 레이아웃에 맞게 배열하는 조판을 하고 가인쇄를 해서 주면,

문선공

금속 활자

기자들이 오탈자는 없는지 등의 교정을 보았고, 수차례 수정 후에 별 이상이 없으면 최종본을 인쇄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오자 발견!

4면 오케이!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조판시스템이 컴퓨터를 이용한 CTS방식으로 바뀌었는데,

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전산사식조판시스템

문선/식자/교정/조판 전체가 100% 전산화 디지털화 된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프린트한 기사와 이미지를 신문 크기의 대지에 일일이 잘라 붙이는 과도기적 방식이었다.

신문 대지 작업

기사가 넘치니까 거기는 덜어내 주세요.

이러한 신문 조판은 대부분 늦은 밤에야 끝났고, 그 후에는 당연히 뒷풀이 술자리로 이어져 한 주간의 수고를 마무리 했다.

고생을 많았다. 건배~

대학주보 문화 중에도 독특한 것으로 '아기 도깨비 걸음마'라는 행사가 있었다.

우쭈쭈~ 잘 한다.

적응기를 거친 수습기자들을 환영해주는 자리인데, 한참 뒤 기수 선배님들도 축하를 위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올해는 많이 살아 남았네. 이번 도깨비 걸음마는 더 성대히 해주마~

수습 기자

...라고는 하지만, 소주를 가득 채운 냉면사발을 몇 순배씩 돌리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음주를 강권 받는 매운맛 통과레이기도 했다.

5배수의 쿨럭 물라? 선배가 한 잔 마실때 후배는 다섯잔 마셔야지!

잊을 수 없는 대학주보 활동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중 진행된 세미나를 빼놓을 수 없다.

Seminar

여름에는 언론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찾아와 기사작성/편집 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기도 했고,

오늘 주제는 '제목은 맛있게 뽑는 법'

OB선배들과 현역기자들이 함께 오대산 등정이나 지리산 종주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 지리산 맞아?

겨울에는 민박집을 잡아 합숙하며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차기 편집장과 면부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라는 논의도 이때 이루어졌죠.

대학주보 겨울합숙

세미나 와중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동기모임의 좋은 안줏거리가 되고 있다.

그때 네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단체기합 받았잖아.

내가 아니라니까!

돌이켜 보면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인 20대 대학생활, 그 중심에 있었던 대학주보에서 수 많은 희로애락을 겪었다.

희

근

락

애

그리고 그 경험과 추억이 이후 30년 사회생활의 밑거름이자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다.

경험가족 여러분 모두 건승하세요.

대학주보

90% 고속충전중